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07	03. 14	03. 21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유미영 집사	김남희 집사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유미영 집사	김남희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신약통독-1월 24일~4월 3일(70일) 하루에 4장을 읽으면 마치게 됩니다. 신약을 완독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해주시시오.
2. 사순절(2월17~4월3일) 기간 동안 경건과 신앙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3. 2월 생일 자-김미자 권사(10일) 김승주 자매(13일) 유미영 집사(15일)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한국 제품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2. Fastenzei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65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영희 시무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막 3 : 7 - 12 (신p57) 김영희 시무권사
 설 교 Predigt 무엇을 바라시나요?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68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온라인 헌금은 정용현 회계 집사님께 문의해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자동차 서비스회사에 근무하는 동생이 오랫동안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의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울적해진 동생은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수영장이래야 꼬마들이 물장구나 치며 놀만한 크기의 널찍한 물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근처 오리농장으로 가서 청둥 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밤새 안녕할 것을 기대하면서 출근하자마자 오리가 있는 물통으로 가 보니 오리가 물통 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동생은 오리를 이리저리 뒤척여봐도 들짐승에게 물린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수영 전문가인 오리가 물통 턱을 기어오르지도 못하고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얇은 물에 빠져 죽을 일은 더더군다나 없지 않은가? 결국 동생은 오리농장으로 가서 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주인은 그것도 몰랐느냐는 듯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 오리는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르지요.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한번도 집어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외모가 오리라고 모든 오리가 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울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경건이요, 성경적 세계관을 따르는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 / 양승훈 목사
 (벤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장)

***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중심점이다.**
 - T. S. Eliot(1888~1965년) -